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What’s better, what’s the best”
(누가복음 Luke 11:5-13)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하셨습니까? 요즘 어떤 운동하십니까? 이렇게 여쭙보면 아주 당당하게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숨쉬기 운동’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숨쉬기 운동만 제대로 잘해도 건강하신 겁니다. 얼마간 감기몸살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촛불을 ‘후’ 불어서 끄는 호흡 테스트를 합니다. 노트북 스크린에 케이크가 있고, 그 위에 생일 초가 10개 있습니다. 가는 호스에 바람을 불어서 몇 개나 끌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몇 번을 시도해봤는데 번번이 마지막 줄에 있는 서너 개의 촛불은 끄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곧바로 숨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한번 같이 제대로 숨쉬기 운동 해볼까요? 먼저 깊이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오래 숨을 내보내 보십시오.

I hope you have had a peaceful week in God’s grace. When asked “What kind of workout do you do these days?”, some of you answer, rather confidently, “Oh, nothing special, just a breathing exercise.” Probably it’s true. Being able to breathe properly means you are healthy. I’ve been suffering for a while from a flu. At a doctor’s clinic, I was given a test to blow out candles. On the computer screen was a birthday cake with ten candles on top. It was to test how many candles I could blow out through a thin tube. I tried many times, but each time I ended up not being able to blow out several of them. Even a little anomaly in our body quickly leads to difficulty in breathing. Now, shall we try a breathing exercise? First, breathe in deeply. And slowly let your breath out bit by bit.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생활을 계속 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이란 숨을 내쉬고 또 들여 마시는 겁니다. ‘후’ 내뿜는 날숨을 통해 인간적인 욕망을 내보냅니다. 회개이지요. ‘흠’ 들여 마시는 들숨을 통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집니다. 숨 안 쉬고 10분 이상 버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 안하고 하루를 산다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일날 기도 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에 와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드는 가사 상태로 사시는 겁니다. 기도 없는 삶은 마치 하루 세끼 햄버거만 드시고,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고, 화장실에는 절대로 안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각종 인스턴트 식품으로 몸속에 독을 쌓아 놓고, 내보내지 않는 과포화의 삶입니다.

Prayer is “spiritual breathing.” The more I pray, the more I come to think that this is an amazing analogy. Breathing means inhaling and exhaling. Breathing out our human desires, this is repentance. By breathing in the Spirit of God,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at goes out and what comes in are clear. When we pray, we disappear and the grace of God fills us completely, from head to toe. Can any of you hold your breath for more than ten minutes? Living even a single day without praying is a miracle. Any of you pray at Sunday worship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last prayer on last Sunday? However normal you may appear, spiritually, you are nearly half dead, living in and out of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A life without praying is like eating only hamburgers for three meals a day, making ramen noodle after midnight, and never going to the bathroom. It is a life overloaded with toxic substances from all kinds of instant food that are piled up inside our bodies without being released.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앞 뒤 안 재고 계속 무섭게 먹으라고 속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뱃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평생 끌어안고 살라고 명령합니다. 은행잔고, 연봉, 학위 같은 세속적인 가치가 인스턴트 식품인 줄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시기/질투/원망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감사/찬양으로 우리 안을 다시 채우는 충전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주간 내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죽음으로 치달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왜 현대 기독교가 초대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ook around you. Money, fame, and power - these things whisper to you to keep devouring without care. Further, they tell you, once you swallow them, to keep holding them in forever without ever letting them go. Prayers make us realize that worldly values such as the balance in our bank account, our annual income, or academic degrees are, after all, just instant food. Lay down before the cross our envy, jealousy, and disappointment, which literally make us sick, and refill ourselves with gratitude and praises, which recover our health. This is prayer. But if we don't pray at all in a week, we are living, approaching fast eternal death. Why has modern Christianity lost the passion of the early church? Because we don't pray enough.

오순절 당시 베드로는 열흘간 기도에 힘쓰고, 10분간 말씀을 전했다 때, 3천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야 겨우 '아 기도를 잊고 살았구나!' 내 모습을 발견하지요. 사도행전적 삶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During the Pentecost, when Peter prayed for ten days and delivered the gospel for ten minutes, 3,000 people received Jesus. How about us? Every day of the week, we live according to our worldly ways. Only when we come to worship do we realize that we have forgotten to pray. This is the opposite of the kind of life described in Acts.

스펠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기도는 신성한 노동이요, 삶인 것입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지요. 물론 끊임없는 간구, 쉬지 않고 마치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싱턴한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주일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중보기도팀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시간을 늘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Reverend Spurgeon commented on prayer: "**Prayer is not something you do when you remember it, but a daily routine, a daily habit, a sacred labor you must repeat every day, and a life.**" Prayer is a sacred labor and life. It is not something that you do occasionally. I agree with the principle of incessant seeking and ceaseless praying as we breathe. There's something more important. It i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is praye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our KUMC is a praying church. As I preach this minute, our intercessory prayer team is praying for this worship service.

Lengthening prayer time and praying with all our hearts are very important.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understand what prayer is.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무조건 ‘막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이를 키워 보신 부모님들은 한번쯤 이런 경험 다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사탕 달라고 계속해서 보채면, 이빨 썩을 줄 알면서도 귀찮아서 사탕 줘 보신적 있으시죠?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를 그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확대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 민망할 정도로 크게 울부짖으면,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할 수 없이 응답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고,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I wonder who troubled Jesus the most. Probably, Mary Magdalene? (‘Magdalene’ sounds like ‘keep asking’ in Korean). When we pray, we ask without inhibition. Those of us who have raised kids must have experienced this. When your kid pesters you for candy, knowing that it will lead to a cavity, you have still allowed it. Often we expand our relationship with our kids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It is the kind of thought that if we cry out loud even to our embarrassment, enough to uproot some trees, our Father in heaven will have no choice but to answer our prayers. This is a wrong theology and complete misunderstanding of prayer.

기도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빠른 기도응답을 위해 잔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얼마나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과시합니다. 수사학적인, 현학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자칫 자기자만에도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기도 시간의 잣대로 형제와 자매를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Prayer is not about me, but about God. Sometimes we calculate to get quick prayer answers. We show off how close we are to God, how spiritual we are, or how knowledgeable we are about the Scripture. We offer sophisticated and rhetorical prayers. Unknowingly we come to take pride in the frequency and the length of our prayers. Moreover, based on our own prayer standard, we judge and condemn our brothers and sisters. Are these real prayers? I’d like to emphasize again: Prayer is not about me, but completely emptying ourselves to God, so He can work in us.

누가 복음 11장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기 소중한 텍스트입니다. 누가 복음 11절은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나, 또는 주님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자 한 용기 있는 제자가 기다렸다는 듯 곁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사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답답해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2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을 주십니다. 이 기도문을 받고 ‘이젠 나도 기도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의기양양해진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신 겁니다. 현상학적 질문이 존재론적으로 환원됩니다.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본질’로 풀어 설명해 주시는 자상한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에는 늦은 밤 친구에게 빵을 강청하는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정한 이유는 주님의 비유가 기도의 본질을 잘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Luke 11 is a very precious Bible chapter because it precisely points out what the essence of prayer is. Luke 11:1 starts with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Eve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prays.

Prayer is not about me or the Lord himself, but our heavenly father, Jesus. As soon as He finished praying, a brave disciple approached and asked Him just like he waited for Him. “Oh, Lord! Please teach us how to pray just as the Apostle John taught his disciples how to pray.” From Luke 11:2 to Luke 11:4, Jesus Christ gave the Lord’s prayers His disciples who were struggled with how to pray. When they received the Lord’s prayers, they felt that ‘We can pray better now!’ He explained the essence of prayer written in a metaphor from Luke 11:5 to Luke 11:8 to the disciples in high spirits. Jesus turned their question about ‘How do we pray?’ into a question about ‘What is prayer?’ It was a time when a phenomenological question is converted into an ontological question. Do you see a caring image of the Lord who clearly explained ‘the method of prayer’ as ‘the essence of prayer’? In Matthew 7, which was parallel to today’s Bible scripture, there is no metaphor about a friend who begged bread to his neighboring friend. The reason that Luke 11 is chosen today was that the Lord’s metaphor shows the essence of prayer very well.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옆집 사는 친구가 대문이 부숴져라 두드리며 빵 세 개를 꾸어 달라고 강청합니다. 집주인은 이미 아내와 아이들이 곤히 잠자고 있는 터라 빵을 줄 수 없다. 하지만 하도 졸라서 할 수 없이 일어나 빵을 준다는 내용이지요. 이 비유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얼마나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에 관한 좋은 예로 이해해 왔습니다. 복음서의 비유는 언제나 표층적인 이해와 동시에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주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알아채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가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비유의 시간적/공간적/문화적 배경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둘째 비유를 통해 주님이 정말 강조하신 포인트가 뭔지 생각해야 됩니다. 셋째 비유의 깊은 의미, 어떤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거꾸로 되물어야 됩니다.

This is how the story goes. It was at midnight. A neighbor was battering a front door begging his friend to lend him three loaves of bread. The friend said that he cannot do that because his wife and children were in a deep sleep. However, the homeowner gave him bread because his friend persistently begged for it. This is the story. We heard this metaphor so many time in the past, so that we understand that this story is a good example about how endlessly and fervently we need to pray. Metaphors in the Books of Gospel always require both shallow and deep understandings at the same time. At least three tasks are needed to proceed to exactly catch the meanings of the Lord’s metaphor. First, we need to dive into metaphor’s chronical/spatial/cultural backgrounds boldly. Second, we need to think of key points that the Lord really emphasizes through the metaphor. Third, we need to ask in return about what is the metaphor’s profound meaning, which questions it answers, and what the Lord really wants to speak about.

먼저 강청하는 친구 비유의 배경을 잘 모르면 떠오르는 질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늦은 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손님에게 꼭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가?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은 먼 길을 온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실례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옆 집 사람이 빵 달라고 문을 두드리서 기왕 잠에서 깬으면 더 시끄럽게 굴기 전에 빵을 주지 왜 망설였을까? 당시 가옥 구조는 원룸 스타일입니다. 낮에는 식당 겸 거실, 밤에는 침실로 쓰는 단칸 방입니다. 밤이 되면 문빔장을 걸고 불 끄고 온 가족이 모두 한 방에서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일단 가족 전체가 잠들고 난 뒤 손님이 찾아올 경우는 어둠 속을 더듬어 오일 램프를 켜고 자녀들의 몸을 뛰어 넘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문빔장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온 가족의 잠을 깨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한 밤 중에 찾아 와서 빵을 달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강청함, 반대에 부딪혀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졸라서 빵을 줍니다.

To begin with, there are two questions in our mind if you don't know the background of the metaphor about the begging friend. Do we have to fix dinner to a guest who visits us at midnight without any notice? The custom in the ancient Far East regards that not treating food to visitors from faraway is very unfriendly. The second question is: Why the homeowner hesitated to give bread before his neighbor made a louder noise, as he already woke up from the battering noise? At that time, the house structure was in one-room style used for a dining and living room in the daytime and a bedroom at night. When night comes, the whole family members sleep together early in the room. Therefore, when guests visit the house while all family members are in sleep, there is no choice but to wake them up because he has to walk over his children's body in the dark to turn on an oil lamp and unlock the door with a loud noise. In such a situation, a friend of his came at night and asked him for bread. The homeowner gave him bread not because he is a friend, but because he persistently begged for bread.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비유는 우리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는지 측정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줄라대는 친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고, 집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막 달라'고 줄라 달 때 아주 귀찮아 하시는 분, '귀찮니스트'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겠다는 것, 이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기'는 뜨거워도 삶을 뒤바꾸는 '변혁의 열기'는 싸늘한 이유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나와 출세하게 만드는 성공신이 되어 한다는 생각입니다. 크리스찬끼리 경쟁하면, 좀 더 세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 착각합니다. 주님의 비유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The Lord's metaphor from the story looks like a simple story, but it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depending on theological perspectives. In fact, the metaphor becomes a good measure of our theological health. We regard us who keep praying as the friend who keeps begging and the homeowner as God. We think that prayer is to force God to work even by twisting His arms when we pray God to give something. The reason that Korean churches are hot in 'heat of prayer,' but cold in life-changing 'heat of transformation' begins with a wrong understanding about prayer. We often believe that God must protect me and my family in any circumstances and ensure worldly success of our children through graduating from top colleges. If Christians compete with one another, we mistakenly believe that God favors prayers of those who pray a little bit harder. It is a complete misunderstanding of the Lord's metaphor.

그것은 비유의 강조점을 9절-10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막 달라' 식으로만 기도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런 오해는 부분적으로 우리말 성경번역에서 시작됩니다. 친구에게 빵을 '청하다'의 원어는 'anaideia' (shamelessness) 인데 우리 성경은 '강청하다/줄라대다'로 옮겨 적었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게으른 하나님 팔꺾기'로 오해하면 안됩니다. 사실 'anaideia'의 원래 뜻은 'without shame' 인데, NIV 성경도 "boldness" 담대함으로 번역합니다. 기도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이나 허물과 관계없이 예수 보혈로 씻음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입니다. 줄라 대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런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더 이상 기도를 인간적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It is because we understand the emphasis of the metaphor only in Luke 11:9-10.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for to you.” Don’t think of prayer in a way that we ask God to give something no matter what. Such a misunderstanding partially comes from incorrect translation in Korean Bible versions. The original meaning of ‘asking’ a friend bread is ‘anaideia’ (meaning ‘without shame,’ or ‘shamelessness’), and our Korean Bible versions translate it as ‘asking’ or ‘insisting.’ We should never understand prayer as ‘**twisting arms of lazy God.**’ The NIV Bible version translates it as ‘boldness.’ Prayer is about God, not me. ‘Prayer’ means that I boldly go before God regardless of my weakness as a forgiven sinner cleansed with the Blood of Jesus. God answers our prayers not because we beg God persistently, but because we are God’s lovely children. **God answers prayer not because of the method of prayer, but because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I pray that you view prayer not from the humane perspective, but from God’s perspective.

오늘 비유의 핵심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13절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유대 랍비들이 사용했던 ‘덧구식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반석 위에 세운 자의 비유의 강조점은 ‘튼튼한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생활의 터전을 잡아야 된다’입니다. 오늘 비유의 강조점은 스토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비교, 덧구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라 할지라도, 생선 대신에 뱀을, 달걀 대신에 전갈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The core of today’s parable is not in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everyone who searches finds, and for everyone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Rather, it should be found in verses 11 to 13 at the end. The parables of Jesus are based on the ‘rhetoric question’ teaching method the Jewish rabbies used. The real emphasis in the parable of building a house on sand verses building it on a rock is that one must build a base of one’s spiritual life on a strong faith. The emphasis of today’s parable in verses 11 to 13 is not in the story itself, but it is hidden in the comparisons and rhetoric questions in the story. No father, however evil he might be, will give his children a snake instead of fish, or a scorpion instead of an egg.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13)

If you then, who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the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Luke 11:13)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오면,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인간적인 아버지와 대조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부각시키는데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집주인은 베풀기를 꺼려하는, 이미 잠자리에 든,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에 기록된 여호와와 모습은 어떻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구하기만, 찾기만, 두드리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Wouldn’t He give us good gifts, the Holy Spirit, when we, receiving grace in Jesus Blood, come forward to Him? Like the parable of the house built on sand and the one built on a rock, today’s parable is to focus on the heavenly Father in comparison to the human father. The father in the

parable we read today shows a homeowner who is reluctant to help, is already in bed and has closed his door tightly. On the contrary, what sort of image the Jehovah gives us in Psalm 121? He is the One who neither slumbers nor sleeps. He waits to respond to our prayers whenever we ask, seek and knock. John Wesley said, **“The very thing our Father does is respond to His beloved children’s prayers.”**

기도에 관한 두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평생에 5 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가 말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 동안 기도해 왔다.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한다.” 물러는 끝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I would like to conclude my sermon today by sharing two important points of prayer. First, prayer is that we open our hearts and mind to the Lord, so that He can work in us. George Muller, the man of prayer, said he received 50,000 prayer responses from the Lord throughout his life. He said, “I have prayed 63 years and 8 months in order for one person’s conversion. He has not turned to the Lord yet, but I rely on the Lord’s ever consistent promises.” Muller died without receiving a response to his prayer.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조지 물러의 장례식장에서 평생토록 기도했던 그가 회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꼭 응답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중에, 아니야.’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만 기도응답으로 생각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더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 분명히 NO, 잘못된 기도에 제동을 걸어 주십니다. 우리 눈꺼풀에 이생의 자랑, 세상의 안일이 두껍게 눈곱으로 끼어 있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n amazing thing happened. The person for whom George Muller had prayed for all his life turned to the Lord at Muller’s funeral. The Lord responds to our prayer; and He always does without failure. His answers are, ‘Right now, later or no.’ But we expect His response should come right away. At times, the Lord wants us to grow spiritually through our prayers rather than giving us what we seek right away. Other times, the Lord stops us from our prayer of impudent desires. We seek those impudent things because we, blinded with pride and worldly comforts, can’t clearly see.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6-7) 기도 드린 후에는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주십니다. 때로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더 좋은 시간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뿐입니다.

Second, the Lord wants to give us better gifts. The Bible tells us clearly, “But when you ask, you must believe and not doubt, because the one who doubts is like a wave of the sea, blown and tossed by the wind. That person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James 1:6-7) Do not doubt. Pray and have faith. The Lord always responds to your prayer. At times it seems taking a long time to get responses, but He plans to give us better gifts at an opportune time and through appropriate means.

우리는 직장 달라고, 멋진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맘껏 우리를 쓰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기도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북미 인디언들에게 선교했던 David Brainerd 가 매일 밤마다 드렸던 기도를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We pray for a job and for a wonderful spouse, but the Lord pours us with a better gift, the Holy Spirit. With full of the Spirit, let's give space to the Lord so that He can use us as much as He likes. Prayer is not about us, but it is about the Lord. It is for us to seek the grace of God who prepares for us better gifts, or, the best of all. Let's meditate on the evening prayer of David Brainerd, the missionary for the North American Indians.

“오,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타오르는 불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어주소서. 저를 세상 끝까지 보내어 주소서. 저를 세상의 안일이라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잘라내어 보내어 주소서. 만일 죽음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저를 죽음으로 보내어 주소서.”
“Oh, Lord, I want to be a burning flaming in serving you. Lord, here I am, send me wherever you want me to be, Send me away to the end of the earth. Cut me off from all the comforts of the world and send me away. Cast me off to death if my death can serve You and my death can enlarge Your Kingdom.”